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연중 제27주일(군인 주일) 2016.10.2(다해) 제2019호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obo.or.kr>



상인성당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루카 17,10)

오늘은 연중 제27주일이며 군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성원하는 군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청하며, 오늘 복음에 나오는 종처럼 우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주님의 성실한 종이 되기로 다짐합니다.

제1독서 하바 1,2-3; 2,2-4 **제2독서** 2티모 1,6-8,13-14 **복음** 루카 17,5-10.

입당송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어, 당신 뜻을 거스를 자 없나이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시옵니다.

화답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영성체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군인 주일을 맞아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2차 헌금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군인의 미소

권호섭 스테파노 신부 | 군종

매주일 오후 3시가 되면 마음이 들뜨고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초병들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초소에 가면 소총을 들고 날카로운 눈매로 경계근무를 서던 초병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수녀님을 보고 좋아서 웃는 것인지, 아니면 들고 간 간식 때문에 웃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간식을 들고 가면 훨씬 많이 웃기는 합니다! *^^*) 하지만 분명한 것은, 힘들고 열악한 곳에서 근무를 서는 초병일수록 더 기뻐하고 환하게 웃는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겠지요. 우리의 삶에 고통과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고마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주일마다 양손 무겁게 해서 그들을 위문하러 가지만 여전히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군종신부로 임관한 지 이제 겨우 세 달 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도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꼭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군인들이 한 번이라도 더 웃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웃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지만 당장은 맛있는 간식을 이용해서라도 웃게 해주고 싶습니다. 웃음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행복은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행복해 하는 군인과 불만으로 가득 찬 군인이 있다면 누구에게 이 나라를 맡기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감사와 참된 행복을 아는 군인이겠죠.

『가톨릭교회교리서』 2310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 생활로 조국에 대한 봉사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위한 역군이다. 이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한다면, 그들은 참으로 국가의 공동선과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처럼 군인들은 우리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군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군인들이 주어진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관심으로 군인들의 미소를 지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필문**

“평화의 주님, 오늘도 조국을 지키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을 굽어보시어 어려움을 이겨내는 굳건한 힘과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자녀들은 복음에 따라 더욱 충실히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군인들에게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주소서. 또한 군종 사제들은 굳건한 믿음과 열정으로 군인들을 보살피게 하시고 저희는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여 군의 복음화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군인을 위한 기도〉

제49회 군인 주일 담화문(요약)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1요한 4,7)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49회 군인 주일을 맞이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조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국군 장병들과 군종사제들, 군종교구민들과 이들의 사목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께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위협과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 일본의 군비 증강 등 내외적으로 복잡한 외교 문제가 공존하는 가운데 오늘날에도 묵묵히 맡은바 위치에서 국방의 의무에 충실한 국군 장병들과 이들을 돌보는 군종사제들이 있습니다. 군종교구는 군 선교 65주년을 맞이하여 “축복의 형제애”라는 사목 목표 아래, 이웃사랑과 형제애의 실천을 위해 일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하느님 당신께서 외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서 이 세상에 보내 주신 데서 드러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군에 들어오게 됩니다. 계급구조 속에서의 임무 부여와 지시, 개인적인 고충과 선임과 후임들의 관계 안에서 적응하며 국방의 의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삭막하게 느낄 수 있는 군대 안에서 이들에게 힘을 주고 희망의 역할을 하는 곳이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미사에 참례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곳에는 군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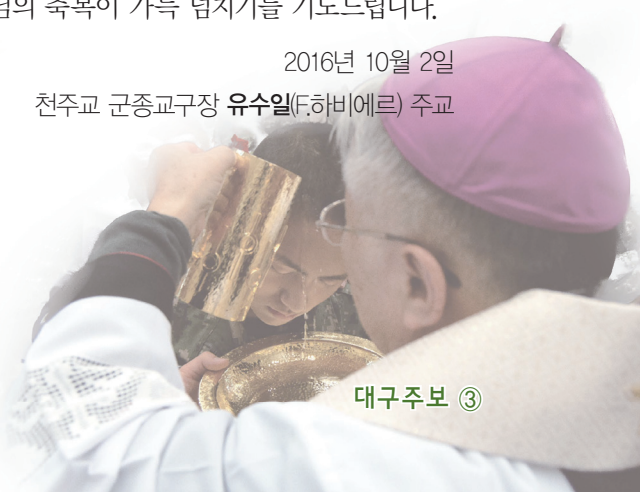
제가 방문하여 형제애를 실천합니다. 또한, 군 가족들은 성당에 오는 병사들을 위해 시간과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예수님 사랑의 계명을 몸소 보여줍니다. 병사들이 입대하며 어렵고 길게 느껴지는 군생활의 새로운 활력과 윤희의 역할을 군복음화에 투신하는 군종사제들과 군종교구민들이 앞장서며 형제애를 체험하게 합니다.

이에 군종교구는 2016년을 “축복의 형제애”로 정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는 사랑의 삶을 살 고자 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군종교구를 내적으로 변화시켜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며,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투신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군 선교 65주년과 제49회 군인 주일을 맞이 이 시간에도 묵묵히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 하는 전·후방 각지의 국군 장병들, 그리고 군종 사제와 수도자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형제·자매 여러분께 겸손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동안의 기도와 격려에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서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2016년 10월 2일

천주교 군종교구장 유수일(F.하비에르) 주교



편한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닌 우리의 삶

마석진 프란치스코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이번 여름은 참 무더웠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실히 느낀 것은, 저의 본가에는 여름에도 웬만하면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번 여름에는 본가에 갈 때마다 에어컨이 켜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와! 이번 여름은 정말 덥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우면 집에 에어컨을 켜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고, 아니면 공공장소에 가서 에어컨 바람을 쐬 수 있다는 것이 올 여름을 버티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걷다 보면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짜증이 나셨던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라는 길이 다니기에는 편안하지만, 더위로 인해 달구어지면 운전하거나 걸어 다닐 때 너무나 힘들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기온이 40도까지 오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느낀 온도는 그 이상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던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즈도 덥고 습한 곳이지만 올해 한국의 대구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기온은 대구보다 더 올라가지만 체감 온도는 이 정도까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대구가 더 덥게 느껴질까 생각해 보니, 많은 에어컨과 아스팔트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더우니 에어컨을 틀게 되고 실외기는 안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 밖의 온도를 올려버립니다. 편안한 길을 가기 위해 깔아 놓은 아스팔트는 햇빛과 더위를 땅과 같이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

사해 더 더워지게 만듭니다.

산타크루즈에서 한창 더울 때 하루에 일곱 번 이상 샤워한 기억이 납니다. 일어나서, 점심 먹기 전후, 저녁 먹기 전후, 미사를 드리기 전후, 자기 전 그리고 자다가 깨서. 그래도 비포장도로인 집 앞길은 밤이 되면 낮의 열기를 휴안으로 빨아들이고 약간의 시원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곳에 에어컨이 설치되었고, 더 빠르고 편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역은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어찌 나쁘다고만 하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편안함이 아닌 불편함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분명 아름답고 조화롭게 창조하셨고, 인간은 그 조화를 깨트리지 않고 더 아름답게 유지하고 발전된 삶을 살아갈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더 빠르게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 불편하고 더 느린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편안하고, 빠른 삶이 꼭 행복한 삶은 아닌 듯합니다. 오히려 자연과 함께 그 질서에 맞게 살아가며 조금의 불편함을 견디고, 약간의 느림과 함께 할 때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필문**

열두 사도 이야기

열혈당원, 시몬 사도



후세페 데 리베라 『사도 성 시몬(1630)』,
유화,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미술관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무지한 어부, 로마제국에 협력하며 민족을 배신한 세리에 이어서 그와 맞서는 정반대의 신분으로 반로마세력이었던 열혈당원마저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로 뽑으셨습니다.

열두 사도의 명단에서 열 번째 또는 열한 번째로 등장하는 시몬 성인은 성경에서 “열혈당원”으로만 소개될 뿐(마태 10,4; 마르 3,18; 루카 6,15; 사도 1,13) 그분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열혈당원이란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통치하던 로마제국과 그 동조자들에게 무력으로 대항할 것을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자주독립을 꾀하던 이들을 일컬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한결같이 시몬 성인을 열혈당원이라고 소개한 것을 보면 성인께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유다 민족의 해방을 위해 투쟁을 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 지금이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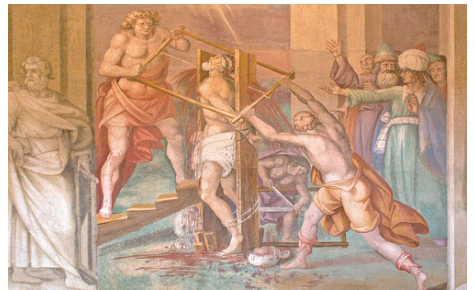
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사도 1,6)라고 말한 사도가 바로 시몬 성인 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이신 시몬 사도 외에 같은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네 명이 더 있습니다. 베드로 성인의 본래 이름인 “시몬”, 예수님의 사촌으로 훗날 예루살렘의 주교가 된 “시몬”(마태 13,55), “나병 환자 시몬”(마태 26,6)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타 언덕을 오르실 때 십자가를 대신 진 “키레네 사람 시몬”이 있습니다.

또한 성인에 대해서 몇몇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갈릴래아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에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전승이 있는가하면,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신 카나 혼인잔치의 주인공 신랑이었다는 설도 있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 선포에 매진하신 성인께서는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타대오 사도와 함께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목이 잘리는 형벌을 받아 순교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시몬 사도의 상이나 그림에는 톱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책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열혈당원이었던 성인의 기질만큼이나 율법에 대한 열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셰마(Shema)”인데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셰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아 들어라.”라는 뜻입니다. 성인의 축일은 10월 28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시몬**



시몬 사도의 순교

교구 행사

■ 오천중·고등학교 성김대건관 축복식



포항 오천중고등학교 성김대건관 축복식이 9월 21일(수) 오후 3시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 3대리구 교구장 대리 취임미사



조환길 대주교의 주례로 3대리구 교구장 대리 김철재(바오로) 신부의 취임미사가 9월 21일(수) 오후 7시 30분 월성성당에서 봉헌되었다.

■ 교구 도보성지순례·병인순교 150주년 미사



사진제공 : 월간(빛)

교구 도보성지순례 및 병인순교 150주년 미사가 9월 24일(토) 오후 2시 한티순교성지에서 조환길 대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 콜카타의 마더 데레사 시성 감사미사



콜카타의 마더 데레사 시성 감사미사가 조환길 대주교의 주례로 9월 26일(월) 오전 11시 성모당에서 봉헌되었다.

〈생명사랑운동 참여 방법〉

1. 가정 성화 및 생명 수호 미사 참례

기간 : 1월~11월(매월 마지막 월요일 11시)

장소 : 성모당

특전 : 자비의 회년 전대사 부여

2. 생명사랑 기부 참여

특별 기부(개인 및 단체) / 일반 기부(매월 5천원 이상 기부)

계좌번호 : 대구, 505-10-173562-7 / 국민, 612901-04-

227935 / 농협, 301-0183-4632-01

문의 : 053-250-3011



미사안내

발달장애아와 가족을 위한 월례미사	10월 2일(일) 16:00 성토마스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0월 3일(월) 11:00 죽도성당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10월 3일(월) 10:30 벼어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0월 3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0월 3일(월) 11:00 성동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0월 5일(수) 11:30 계산성당
말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10월 3일(월) 11:00 계산성당	경주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10월 5일(수) 19:00 근화여교경당

대리구 소식

3대리구 성소후원회 일일 피정

일시: 10.10(월) 10:00~14:30, 월성성당
강사: 하성호 신부 / 1인당 5천원
신청: 3대리구청, 641-5678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10.9(일) 14:00, 부산 본원
일시, 장소는 전화상담 후 정할 수 있음
대상: 선교 수도생활 관심 미혼 여성
문의: 루카 수녀, (010)9319-1690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10.9(일) 14:00
장소: 가톨릭근로사회관 경당
문의: (010)5033-9302
<http://www.columban.to>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10명)

기간: 10.18(화)~19(수), 효령하늘집
내용: 정기모 신부와 함께 하는
주교 받은 상처의 치유 시간
문의: 동천성당, (054)382-0091

1박 2일 음악 힐링 마음 명상 피정

기간: 10.14(금) 18:30~15(토) 15:00

장소: 칠곡군 연화리피정의집
대상: 개인 혹은 단체(10명 이상)
문의: 연화리피정의집, (010)3542-4835

2박 3일 무료 치유 피정

기간: 10.7(금) 18:00~9(일) 15:00
장소: 청주교구 성령새신봉사회(무료숙식)
출발: 시민회관 13:30
문의: (010)4006-6482 / (043)213-9103

천호성지_주말 영성 피정

기간: 10.8(토)~9(일)
장소: 천호성지피정의집
주제: 내 삶을 비추는 빛과 기쁨을 찾아
지도: 바오로팔수도회
문의: 천호성지피정의집, (063)263-1004

제주 성이시들 자연 피정

올레, 한라산, 미사, 기도, 강의
기간: 10.11~14 / 10.18~21 / 10.23~26
10.30~11.2 / 11.4~7 / 11.9~12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성이시들피정의집, (064)796-9181

교육 | 모집 | 기타

성녀글라라 영성 강좌 모집

기간: 10.22~17.4.22 매월 넷째주(토)

시간: 14:00~17:00 / 강사: 김찬선 신부
장소: 프란치스카눔(월배성당 뒤)
주최: 재속프란치스코회 / 5만원
문의: (010)3839-9203

이스라엘·동부지중해 성지순례 크루즈

기간: 11.27(일)~12.10(토) 13박 14일
장소: 이스라엘, 이태리, 그리스
경비: 내측 498만원, 발코니 548만원
문의: 가톨릭신문사, (02)2281-9070

일본 가고시마교구가 주관하는 성지순례

출발: 10.30(일), 11.6(일), 11.21(월)
11.27(일), 12.26(월) 4박 5일
지역: 가고시마, 나가사키 / 63만원
내용: 일본 가고시마 주교 만남 및 안수
문의: (070)5110-3449 / (010)3005-9028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차량, 호텔, 펜션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1월 정규 입학 모집

기간: 단기, 장기 / 대상: 초5~중3
주최: 그리스도의레지오수도회
문의: (02)2258-8983
<http://www.oakinternational.co.kr>

천연염색공방 풀라빛
<http://www.풀라빛.com>

- 의류 ·침구류 ·소품
- 염색원단 ·감물 ·혼수품

색의 연구가 **이명숙** (루실라)
Mobile : 010-9350-4922
경북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730번지

since 1999
성모아이한의원
감기출염/성장(식육부진·수면장애)/아토피/야뇨
소아간질(경기)/틱·ADHD/발달장애

한 의 학 박 사
동국대한의학과 외래교수 **김성철(비오)**
대표번호 **1588-3386**

대구 범어역 3번 출구 애플타워 8F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강남메디타워 4F

32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대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경일신경과·내과
대표전화 053) 652-2525

2호선 내당역 2번 출구 (홈플러스 내당점 맞은편)

- 치매 / 뇌졸중 상담 268-2525
- M R I 예약 262-2525
- 위/대장 내시경, 성인병 종합검진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제주도”성지순례

▶ 출발일 : 10월 31일,
11월 14일,
11월 28일 - 2박 3일 -

T. (053)253-3399
조철래(유스티노)
홍미희(안젤라)

(주)영지여행

개원 30주년
달성피부과

BF PNT영양치료실/화상,흉터크리닉
1F 아토피센터/대상포진통증크리닉
2F 오프토피스킨케어/여드름크리닉
3F 레이저/보톡스/리프팅 동안센터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김민주(레지나)**
7호광장 두류역 2번출구 ☎ 566-4333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필리아)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KCC 인테리어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0월 4일(화)은
(故) 윤광제(다윗) 신부
선종 6주기입니다.

행사 | 모임

김종숙(요안나) 도예성물 초대전

기간: 10.7(금)~16(일)
장소: 동성로 바오로딸서원
주제: 묵주기도의 어머니
문의: 성바오로딸수도회, 425-5185

성요셉 새성전 · 공동 사제관 봉헌식

일시: 10.9(일) 10:30
집전: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주참: 사제단_새성전 지하주차장
일반신자_구. 성요셉성당 마당
문의: 성요셉성당, 634-9591

남산성당 설립 90주년 기념 가을음악회

일시: 10.14(금) 19:00, 남산성당
출연: 생활성가 김정식(로제리오), 가톨릭
중창단, 테너 이병삼 교수, 소프라노 주선
영 교수, 남산성가대, 남산 어린이합창단
문의: 남산성당, 253-7823

제30차 교구 올드레아

일시: 10.15(토) 9:00
장소: 성김대건기념관
주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문의: 꾸르실료, 254-4671

드망즈 갤러리 개관기념

대구가톨릭미술가 100인전

기간: 10.22(토)~11.20(일)
오픈식: 10.22(토) 17:00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 드망즈 갤러리
주관: 대구가톨릭미술가회

교육 | 모집

시니어평생대학 봉사자 성경교육

일시: 10.17(월) 14:0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강사: 이동철(대건 안드레아) 신부
문의: 교구 노인담당, 250-3077

제8차 교구 청년국 비다누에바 연수

기간: 11.4(금)~6(일),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20~40세 미만 미혼
<http://cafe.daum.net/daeguvida>

프란치스카눔 교육생 모집

과목: 발성법, 가곡교실, 성가반주법
장소: 프란치스카눔 / (010)9100-4114

가톨릭국악예술연합회 공연단 모집

일시: 11.7(월) 19:00
장소: 추후 개별공지
대상: 교구 내 국악 예술관련 활동중인
신자 및 각 본당 국악 예술단 관계자
신청: (010)3501-4153 / (010)3157-5455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성가반주법, 우쿨렐레, 통기타, 바이올린,

플루트, 성인생활영어회화, 텃생·유화·수
채화 / 문의: 476-6211(1호선 교대역)

대구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이용

내용: 가정폭력, 부부(자녀)갈등, 가족
문제 등
이용방법: 전화, 내방(무료상담), 사이
버상담 / 문의: 253-1405~6

2017 자율형사립고 대건고 입학설명회

인성 등업, 학력 등업, 대건 등업
일시: 10.15(토) 14:00
장소: 대건고 안드레아관
원서접수: 11.7(월)~10(목)
문의: 입학홍보실, 235-4560

채용 | 안내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천주교대구대교구에서 출자하고
매일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일상조에서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427-4400

교구 법원 공시(253-9550)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서정임(마리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6년 대상자 /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목조전원주택 분양/시공



21C HOUSING
21C 주택산업
이정수 마리아
경산조폐공사정문 앞

(053)817-0322 | 010-2624-0322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등대꽃
건강방법
자연친화적

지하철 2호선 내당역 3번 출구
예약 **053)652-5432**

이태도 가브리엘, 윤영이 카타리나

라인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 원장 원 중 훈 (바오로)

피부질환 | 아토피 | 알레르기 | 사마귀 | 티눈 | 건선 | 무좀
피부미용 | 에드름 | 흉터 | 기미 | 잡티 | 모공 | 보톡스 | 필러 | 비만

대명동 한영유니존빌딩 3층 (구.달성군청)
1호선 삼당역 3번출구 T.053) 651-8800

대구연세안과

아이디자인라식 · 렌즈삽입술 · 노인수술 · 백내장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원장 박중원(소시오)
현.연세대외래교수

053)626-8881 ~ 5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 · 어깨 · 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훈(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4790-3888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